

법회안내

초입사 (02)803-4779
초하루기도
매월 1~3일
(음) 오전 10시
30분
약사재일기도
매월 8일(음)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30분
인동기도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30분
*금강승선관주 수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호국 원광사 (02)796-0230
일요법회 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자녀VTR
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화요초초법회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수요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초하루 인동기도
매월 1일(음) 오전 10시
창정도량가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보통인동기도
매월 15일(음) 오전 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 24일(음) 오전 10시

서구교육원 (053)567-3569
육조대장경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수능입시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기도
매월 1일(음) 오전 10시 30분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 10시 30분

광주 금광사 (62)375-3191
경가법회
매월 18일(음) 오전 11시
삼일기도
매월 18~20일(음) 오전 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
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
내주시면 성실하게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모두를 부처로 섬기라
국청회 '보현행원품' 강의

"하늘과 땅은 나와 그 뿌리가
같고 온갖 만물은 나와 한 몸이
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섬기고 공양하라."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방법
을 주된 내용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을 나타낸 <보현행원품>.

국청회(회장 김일성)는 6일부터
2개월간 회원을 비롯한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보현행원품>을
체계있게 교육한다.

무진장스님(前 조계종 포교원
장)의 명쾌한 해설로 불교 기초
교리와 <육조단경> 강의도 마련
된다. (02)730-1250

전범은 가장 큰 보시
극락정사 팔리경전 정대불사

김해 극락정사(주지 해암)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중스님(불갑
사 조실)을 초청, 12일부터 5일
간 미얀마 수도 양곤 최초 한국
사원 전립 및 팔만대장경 역경
연구소 기금조성을 위한 '팔만
대장경 원전(팔리어) 정대불사
대법회'를 갖는다. 보살계 수계
법회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과 함께 병행되는 이번 법회는
팔만대장경 원전 탁본 1매를 머
리 에 이고 법계도(法界圖)를 따
라 도는 정대불사로 병행된다.
동참금 5만원. (0525)45-8123

속세물든 먼지털고...
천리안소모임 산사순례

<삼국유사>의 주치가 서려있
는 유적을 찾아 떠나자.
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
삼국유사소모임(대표 김봉식)이
11월 9일 늦가을의 정취가 완연
한 지리산 자락을 찾는다. 속세
와의 인연을 끊고 깊은 산골짜
기에 들어와 스님이 갠던 신종
과 이순 등의 이야기가 전해 내
려오는 단속사지와 늦가을 산사



◇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 삼국유사 소모임은 9일 단속사지로 답사여행을 떠났다. 지리산 자락에
지리한 단속사지. 속세와 인연을 끊은듯 동서백팔과 당간지주만이 의롭게 서있다.



의 고즈넉한 정취가 물씬 풍기
는 내원사에서 도시생활에 지든
먼지를 말끔히 털어낼 수 있다.
또 울 하나하나 다듣는데도 온
정성을 기울였던 우리 조상들의
단속사지 생담과 당간지
주, 내원사 석조여래좌상 등
에서 만날 수 있다.(천리안 문화유
산답사동호회 삼국유사소모임
계시관 No.966 삼국유사 24편
안내)

민족의 숨결 만나보자
삼국유사 원문 해설
신화, 전설, 실화 등의 재미난
이야기속에 묻어놓은 불교적인
의미들을 단순한 내용해설에 거
치지 않고 원문을 살펴 한문공
부도 아울러 스님이 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의가 있
다.

일연스님의 저서 <삼국유사>
원문을 통해 불교적인 의미를
살피는 강좌가 바로 그것.
현재 불교부동산방송의 '이야기
삼국유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
영조선생의 해설로 서면 화담회
관에서 11월 6일부터 매주 목
요일마다 열린다. 삼국유사를 한
문공부와 함께 재미있게 익힐
것으로 기대. (051)818-8659

무명벗고 참나찾아서
관음사 1주1회 사경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학
장 우학)는 11월 11일부터 동안
거 3개월간 대승경전 특강과 1
주1회 사경법회를 연다.
무니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
장)의 지장경, 자광스님(김용사
주지)의 원각경, 근일스님(부석
사 주지)의 법성계, 삼중스님(자

비정사 주지)이 금강경을 각각
강의한다.
오전반은 매주 화·수·목·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반
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7시 30
분부터 시작. 이 기간동안 법당
에서는 경전구절을 한자 쓰고
한번 절하는 일자일배(一字一
拜) 사경(寫經)법회도 아울러
진행된다. (053)474-8228

"21세기는 불교와 함께"
팔달사 불교학교 개강

수원불교청년회(회장 김해경)
와 팔달사청년회(회장 강필성)
가 함께 주최하는 '제3기 불교
학교'가 6일부터 16일까지 팔달
사 대웅전에서 개최된다.
'21세기는 불교와 함께'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배움터는
△6일 '우리생활 문화와 불교의
접속' 권두현(안동대 민속학과
강사) △12일 '화합과 통일
의 시대' 손해재(성심여대교수)
△13일 '인간성 상실의 시대와
불교' 정락스님(유종사 주지)
△16일 서산 개심사, 함계사에
불상, 수덕사 탐방 등의 일정으
로 꾸며진다. (0331)44-5088

전시

△칠기유물=국립청주박물관
(관장 서오선)은 30일까지 별관
전시실에서 진천 석장리 철생산
출토유물 등 2백여점을 전시한
다. (0431)55-1632

부음

△도립선지자 부친상=현대불
교신문 도립선지자(편집국 취재
1부)의 부친 도태환씨(63세)가
10월 28일 새벽 4시 15분 타계했다.
(051)626-1561
△선상신처장 범모상=불교방
송 보도국 선상신 처장의 장모
신숙희씨(69세)가 28일 오전 별
세했다. (02)705-5288



〈서양화가〉

나의 수행일기
돌아보면 지금까지 미움과 좌절
속에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가다듬 살아왔다.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허물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듬어 자비로운 삶
을 살도록 참회하면서 노력하고 있
다. 그동안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던 부모님과 사랑하는
두 딸, 나를 아는 모든 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합찬
발걸음을 옮겨 본다. 마음은 벌써 비
개인 부처 석왕사 일주문에 들어서고
있다.
독실한 불교집안에 몸을 받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절을 찾았던
기억이 새롭다. 추억속의 할머니는
늘 새벽 일찍 일어나 정갈한 모습으
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곤 했다. 아
마도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보다는
가족과 친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도였으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곳은
기독교재단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

되면서부터는 점점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보다는 평상의 삶에 안주하기 시
작했다. 6년전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15년, 그간 한시도 불교를 잊은 적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생활
에 평정심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았
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사랑보다
는 미움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는 후회와 자책의 시간으로 자신을
나누라고 했다. 생각해 보면 가장 힘
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래도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기에 이제
는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으로 보듬고 사랑하게 되었다.
20여년 전, 페결핵으로 인해 모든
인내의 한계를 느껴 몸과 마음이 허물
어 질 때는 그림을 통해 상상의 나래
를 폈다. 그 상상의 세계에서는 걷기
도 하고, 뛰기도 하고, 채 이루지 못
한 멋진 사랑을 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림과 보고픈 산 들 강 바다에
마음껏 갈 수 있기에 좋았다. 내가 좋

"이젠 이웃에 기쁨 줄 터"
관음정근 속에 미움·절망의 세월 반성

었다. 언제나 자
신들의 믿음만
을 강요하는 터
이어서 산사를
찾기가 여간 어
려운 것이 아니
었다. 하지만 어
릴 때부터 절을
찾던 습이 몸에
배어 도상에 있
는 조계사를 찾
았다. 사촌기 시
절 마음의 여유
를 찾기 위해
자주 절에 들리다 보니 불교학생회에
인연이 닿아 운문스님의 지도를 받
을 수 있었다.
운문스님은 특히 학생회 지도에 열
심이었다. 어려운 불교교리도 실생활
에 맞게 지도해 주셨고 불교적인 삶
의 모습도 몸소 보여주셨다. 운문스
님의 지도로 어느정도 신행이 몸에
배었을 때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를
받았다. 부처님의 한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 청정한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끊임
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생활과 수행을
가다듬어 나가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으며,
이때부터 관음정근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하여 사회인(군인)이

아하는 그것들
을 마음껏 그리
수 있기에 조금
씩, 아주 조금씩
가슴의 통증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고통이 평생
을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면 고
통으로 쫓겨나
기 보다는 내 일
부로 담담히 받



게시관

모집

△관음불교대 신입생=관음불
교대학(학장 청운스님)은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신입
생과 경전반으로 나뉘어지며 교
육기간은 1년. 수시로 접수 가
능. (02)389-8966

강좌

△불교기초교리·생활역학=
불교정주방송 문화기획단은 불
교기초교리 수지침 생활역학 등
5개 교양강좌를 8층법당에서 개
설하고 있다. 이번 교양강좌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생활역학
(한겨레문화센터 김동원강사)은
월요일 오전 10시, 수지침(강용
달강사)은 화요일 오후 7시, 서
예(송중관 예술의전당 강사)는
수요일 오전 10시, 사군자(전효
숙 화선서예원장)는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한다. (0431)294-
5114

알림

△하루첫집=대한불교청소년교

순례

△백악사·대둔사=불교방송
(사장 서돈각)사업국은 11월 8~
9일 양일간 백악사, 대둔사(구
대흥사), 미황사, 무위사로 순례
를 떠난다. (02)705-5302

순례

△칠갑산 장곡사=능인선원(원
장 지광)은 6일 장곡사로 답사
를 간다. 동참비는 1만5천원.
(0343)92-2576
△실상사·만복사=광주불교교
육원(원장 영조스님)은 8일 실
상사, 만복사, 정령지 마애불 등
지로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전방
대박물관 황호근 학예연구사가

순례

화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효
중)는 8일 중앙동 다전에서 소
년소녀가장등기 하루첫집을 연
다. (051)633-6412

순례

△칠갑산 장곡사=능인선원(원
장 지광)은 6일 장곡사로 답사
를 간다. 동참비는 1만5천원.
(0343)92-2576
△실상사·만복사=광주불교교
육원(원장 영조스님)은 8일 실
상사, 만복사, 정령지 마애불 등
지로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전방
대박물관 황호근 학예연구사가

◆ 모시는 말씀 ◆

雪岳의 단풍이 만인을 손짓하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老人들의 樂園, 東海岸 유료노인복지타운 보리수마을 竣工式 및 病院開院式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왕림하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7년 11월 12일 (음 10.13)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 강원도 양양 보리수마을 현지
- 전화 : 서울(02)511-6431, (0396)671-6808~9

※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예약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

증명증 총무원장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정노천 율하
보리수마을 이사장 김명신 합장

효성석재공사

귀의 성모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역비 제작설치
- 안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천 숭도선원 - 원형천지담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실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542-1527 야간 (0351)874-4685
공장 (0357)542-1528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 명으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미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